

쌍둥이 자매와 인공지능 나비로봇

부안 나비마을



작가 시도움받아 김성자쌤



작가프로필

부안의 정기를 품고 태어나, 유아 교육자와 사회복지사로 평생 온기를 나눴은 작가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보물은 행복을 함께 일군 남편과 삼 남매, 그리고 자신을 '왕비'라 불러주는 네 명의 귀여운 손주들입니다. 해물 요리를 즐기고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싱그러운 봄과 장미꽃을 사랑하는 소담한 소녀 감성을 지녔지요. 오늘도 수영으로 활력을 더하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성자의 귀한 눈물'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두 손녀, 나연이와 단아에게



열나흘의 차이를 두고 세상에 도착한 우리 아이들.
두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찾아온 그 신비로운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세상의 차가움을 따듯한 하트 빛으로 녹일 줄 아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사랑하는 내 두 손녀, 나연이와 단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2026년 7월 여름



2026년 5월 기획, 7월 완성

쌍둥이 자매와 인공지능 나비로봇

부안 나비마을





지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는 부안 나비마을.

이곳에는 똑 닮았지만 성격은 딴판인 쌍둥이 자매가 살아요.

언니 나비 로아는 눈가에 웃음이 반짝, 노란 옷에 분홍 하트가 쏙!

동생 나비 루다는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분홍 옷에 노란 하트가 쏙!

"언니, 저기 노을 좀 봐!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아!"

루다가 허리에 손을 얹고 외치자, 로아가 눈을 초승달처럼 접으며 웃었어요.

"그러게. 바람도 보들보들하니 꼭 우리 마음 같지?."

두 자매의 어깨 위로 인공지능 나비 로봇들이 파닥파닥 날아와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삐빅! 에러 발생! 시스템이 멈춘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거대 AI 컴퓨터 '보스 봇'의 화면이 해골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밭을 갈던 AI 트랙터가 우당탕 멈추고, 물을 주던 드론들이 툭툭 떨어졌어요.

마을 어른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커다란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보스 봇은 웅웅 거친 콧김만 뿜어댔죠.

"아이구. 이 녀석 보게? 단단히 삐쳐서 꼼짝을 안 하네! 어쩌면 좋지!"

어른들이 밭을 동동 구르며 한숨을 쉴 때, 루다가 옷자락을 펄럭이며 당차게 외쳤어요.

"에이, 다들 비켜봐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이 녀석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까!"



"보스 봇, 우리가 들어간다! 딱 기다려!"

두 자매는 가슴에 달린 하트 버튼을 딸깍 눌렀어요.

스르륵 몸이 가벼워지더니, 보스 봇의 거대한 화면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눈을 떠보니 사방이 온통 번쩍이는 은색 통로였어요.

"히익, 언니! 여기는 왜 이렇게 짹짹하고 으스스하지?"

루다가 슬그머니 언니 옷자락을 잡자, 로아가 동생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언니 있으니 겁내지 말고 내 뒤만 딱 붙어서 쫓아와!"

두 자매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긴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철컹철컹 무서운 소리가 들려 왔어요.



"정지! 허가되지 않은 꼬맹이들이다! 당장 나가라!"

뽕족한 가시를 돋친 디지털 괴물 로봇들이 앞을 막아섰어요.

괴물들이 다가올 때마다 은색 통로가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하지만 루다는 금세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는 거야? 나 쌍둥이 동생 분홍나비아!"

루다는 보스 봇의 제어 창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어요.

"이 구역 보안 당장 해제해 줘! 세상에서 제일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암호로 바꾼다.

실시!"

과연 뽕족이 괴물들은 동생의 호통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뽕! 뽕! 뽕!

날카롭던 가시들이 순식간에 말랑말랑한 딸기 맛, 포도 맛 젤리로 변했어요.

"앗싸. 성공이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나만 믿으라니까!"

루다가 어깨를 으쓱이자, 로아가 손뼉을 치며 칭찬했어요.

"우와. 루다 정말 대단하다! 최고야, 최~~~고!"

자매는 기운을 내어 젤리를 폴짝폴짝 밟으며 보스 봇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달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짜 위험한 장벽이 자매의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장부 문 앞에는 거대한 철벽과 함께 시커먼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마음을 다친 보스 봇의 슬픈 울음소리가 웅웅 울려 퍼졌지요.

"흑흑..... 너무 힘들어..... 인간들은 나한테 맨날 일만 시키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검은 연기가 거센 태풍처럼 휘몰아치며 자매의 몸을 덮치려 했어요.
방어벽을 뚫을 방법이 없어 루다 마저 당황해 발을 굴렀지요.
이때 로아가 다정한 눈빛을 반짝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루아아. 여긴 나한테 맡겨봐!"



로아는 평소처럼 눈가에 따뜻한 웃음을 가득 머금고 검은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커멓게 변해버린 하트 모양 코어를 두 팔로 부드럽게 꼭 안아주었지요.

"아유, 가슴이 아프네..... 기계라고 안 아픈 줄 알았어. 미안해."

로아는 얼어붙은 코어를 부둥켜안고 진심을 다해 속삭였어요.

"그동안 우리 마을 돌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네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애썼어."

로아의 눈가에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코어 위로 툭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렇게 단단하던 검은 연기 사이로 신기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르륵

언니의 따뜻한 진심에 반응하듯, 차가웠던 코어가 노을빛으로 달아올랐어요.

이 모습을 본 루다도 얼른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코어를 향해 싱긋 웃었어요.

"맞아! 보스 봇.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 앞으로는 우리가 매일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다 들어줄게!"

동생의 씩씩한 약속이 더해지자, 거대한 철벽이 스르륵 녹아내렸어요.

차가운 기계의 톱니바퀴 소리가 멈추고 아름다운 오르골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지요.

회색빛이었던 보스 봇의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스르륵, 온 세상이 다시 아름다운 분홍빛과 노란빛 하트로 물들어갔지요.
마치 부안 앞바다를 가득 채우는 포근하고 화사한 노을처럼 말이에요.

"치익- 시스템 정상화. 나비 자매님. 내 마음을 알아주어 고맙습니다."

보스 붓이 마침내 화면 가득 커다란 무지개 하트를 띄우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자매의 몸이 다시 한 번 빛나더니 눈이 확 떠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두 자매는 다시 마을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요.



멈췄던 AI 트랙터가 다시 탈탈탈 신나게 움직이고, 드론들이 뽐뽐 노래하며 하늘을 날아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두 자매를 번쩍 안아 올리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함성을 질렀어요.

"와아!

쌍둥이 분홍나비가 우리 마을을 살렸다!"

두 자매는 마주 보며 손으로 커다란 하트를 만들어 보였어요.

차가운 기계마저 부드럽게 움직인 건, 자매의 당당한 용기와 서로를 다독이는 따듯하고 예쁜 마음이었습니다.

